

## 문성현(전 민주노동당 대표) · 이해자<sup>1)</sup> 1차 구술

1. 구술자: 문성현, 이해자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7월 23일
5. 구술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구술자 농막(農幕)
6. 구술분량: 06분 18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86년 노무현 변호사 자택에서 가진 ‘노동자 수련회’

문성현 : 팔십칠(87)년도에는 워낙 사건이 많이 터져가지고 본인이 못 하셨는데, 팔십육(86)년도에 있었던 건들 통일의 여영국 사건<sup>2)</sup>, 거제도의 세일중공업 사건(세일교통)<sup>3)</sup> 그리고 내 기억에 또 하나 부산 고무공장, 진양고무<sup>4)</sup>나 이런 데 그런 친구들. 이런 변론들을 거의 다 본인이 맡으셨어요, 팔십육(86)년도 한 해. 팔십칠(87)년도는 워낙 바쁘셔가지고 여기저기에 [사건을] 나눠주는 계기가 되셨는데, 아마 그걸 하시면서 본인이 [노동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팔십육(86)년도 겨울에 [부산] 남천동 아파트인가? 거기 가셨을 때 나하고 쪽 걸으면서 소회를 말씀하시고….

면담자 : 팔십육(86)년도 가을에 출소하시고, 그해 가을에 남천동 아파트(노 변호사 자택) 가서 수련회를 하셨다고.

문성현 : 팔십육(86)년도 한 해는 창원 통일중공업, 그리고 부산 고무공장, 울산 현대엔진<sup>5)</sup> 노옥희 선생, 그리고 거제도 [세일교통]. 나름대로 제가 죽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주로 그 사건들도 노무현 변

---

1) 문성현의 부인

2) 1986년 창원에 소재한 ㈜통일의 노동자 여영국·박성철·허재우 등이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사측의 노조활동 탄압과 임금인상 요구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원집회를 열자, 사측이 집회를 해산시키고 이들을 모두 해고한 사건이다.

3) 구술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통일이 세일중공업으로 바뀐 때는 1991년이다. 거제의 세일교통 사건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의 버스회사 세일교통에서 노조 설립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건으로 1985년 시작됐다. 당시 노조를 이끌었던 조준식·이형로·김석동의 구술이 노무현 사료관에 공개되어있다.

4) 부산에 소재한 고무공장 ㈜진양의 노조가 1987년 8월 비인간적 처우 개선,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 1987년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현대엔진을 시작으로 다른 계열사에 노조 결성이 확산되며 7월 28일 현대중공업 최초의 파업투쟁으로 이어졌다.

호사님이 다 맡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산서 한번 만나자’ ‘어디가 좋겠냐?’ 노무현 당시 변호사님이 ‘그럼 우리 집에서 하자’ 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팔십육(86)년도 같으면 본인도 평범한 변호사로 남진 않는다는 걸 결심하셨던 때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범국본<sup>6)</sup>이라든지 전두환 독재에 대한 민주화투쟁이 가열화 돼가던 상황이니까, 팔십육(86)년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미 본인이 ‘평범한 변호사로 살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시고. 팔십육(86)년도 같으면 뭐 그럴긴 하지만, 팔칠(87)년도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했으니까. 둘 다 이제 고생할 각오로 ‘고생이 되더라도 이 길을 서로 가자’ 그러고 나서 내가 만나면 이제 ‘변호사님’ 하다가 또 ‘형님’ 그랬다가 거의 그런….

면담자 : 대통령님은 대표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문성현 : ‘위원장’, ‘문 위원장’ 이랬지.

면담자 : [이혜자 씨를 바라보며] 선생님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셨나요?

이혜자 : 아,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냥 저한테는 ‘이혜자 씨’ 그렇게 했었어요.

문성현 : 대통령님이 운동노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노선이 있었다면 뭐랄까 민주주의에 대한 그 부분의 경우 두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역주의는 안 된다’ 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것이 기본 노선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실 때 전후에 노동운동의 톱발(톱니바퀴)과 같이 맞물리고 변호사로서 같이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애정과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분이다, 대통령님은. 그니까 노무현 당시 변호사께서 왜 정치를 하게 됐나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고 상임위를] 딴 데 안가고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를 하잖아, 환노위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일 거라. 나중에 환노위가 되지. 노동위원회를 하시고 거기서도 이해찬 [의원]도 있고 다 있었지만 열심히 하시고. 그 뒤로도 민주당 내에서, 나중에도 현대자동차 사건<sup>7)</sup>이 있을 때 책임을 맡으시고 이런 걸 보면, [자신이] 정치라는 걸 통해서 일정하게 노동문제에 해야 될 역할이 있다. 특히 변호사로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해봐도 법도 한계가 있

6) 정식명칭은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본부’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 ‘범국본’등 다양한 약칭으로 불렸다. 1987년 발족한 기구로, 구술자의 착오로 보인다.

7) 1998년 IMF 사태를 맞으며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4,83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한다.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노무현은 당 노사정지원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울산에 내려가 6일간의 중재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 내용은 자서전 <운명이다> 153쪽에도 등장한다.

잡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뭐, [나한테] 그런 이야기했어. 나하고 남천동 바닷가 거닐면서. ‘문 위원장은 현장 가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장노동자가 될 순 없는 거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현재 내 위치에서 노동자와 함께 살겠다.’ ‘노동자와 함께 살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 내 위치에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팔십칠(87)년 (민주화)투쟁 흑 벌어지면서 법적인 게 많이 발생하는데 변호사가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변호사를 버리고 노동자로 살 수도 없고. 투쟁현장에 갈 수도 없고. 변론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조건에서 ‘그럼 내가, 내 위치에서 더, 이 노동자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라는 점을 [고민하다] 자연스럽게 정치를 생각하셨을 거야, 지금 와서 보면. 거기서 첫 출발은 상당한 정도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정합(整肅)한 게 뭐냐? 정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 문성현 주요이력

- 1952. 경남 함양 출생
- 1970. 진주고등학교 졸업
- 1975.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80. 동양기계 입사
- 1981. 이혜자와 결혼
- 1985. (주)통일 노조위원장 당선
- 1988. 경남지역노동자협의회 의장
- 1989.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 1994.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 1999.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2004.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 2006. - 2008. 민주노동당 대표
-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민주노동당, 창원시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통합진보당,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지도위원

■ 이해자 주요이력

1955. 출생

1981. 문성현과 결혼

1987. 경남지역노동자협의회 활동

1988. 마산·창원노동조합연합 정책실장

문성현과 이해자는 함께 노동운동의 길을 걸어온 동지이자 부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문성현은 1980년 동양기계에 입사, 노동현장에 투신한다. 81년 문성현과 결혼한 이해자는 서울 구로공단 봉제공장에 취업해 학생운동을 하다, 남편을 따라 경남으로 터를 옮긴다. 1985년 6월, 문성현이 (주)통일의 노조위원장이 되고 얼마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수감당하면서 노무현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후 문성현은 1994년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총장, 1999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 노동운동사의 큰 인물로 성장한다.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 대표를 맡는 등 대통령 재임기까지 노무현과 긴 인연이 이어졌다.